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

MAY 2020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97

New Normal을 맞는 골든클럽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우리 삶과 사회가 전에는 상상조차 못해 본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담소한 것도 오랜 기억이 되었고, 유일한 외출인 grocery shopping도 전쟁터에 가는 기분이다. 세계의 중심인 뉴욕이 전염병의 중심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의료진이 살신성인의 헌신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인다. 다가올 미래가 전처럼 풍요하고 편안한 시대가 될지 혹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new normal'이 될지 모르겠다. 단 그 미래가 골든클럽이 추구하는 건강, 행복, 상부상조 등의 인간적 가치가 가득하길 기원한다.

금년 골든클럽 행사들을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9월이 지나면 같이 산행도 하고, 골프도 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넓은 공간에서 맑은 공기 마셔가며 운동하며 반년 이상 집 속에서 칩거하며 견디지낸 것을 탈탈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이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차다. Golf Outings (당신의 최고 코스?), Catskill Picnic, Hiking Minnewaska Lake 등 철저히 준비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겠다.

올 여름은 힘든 시간이 계속되리라 예측되지만 회원들이 너무 고립되지 않고 virtual하게라도 왕래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제안을 하려한다. 우선 정해민 고문의 제안으로 골든클럽에 비상지원센터를 가설하려 한

다.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회원들이 도움이 꼭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는 기구이다 (2면 소개 기사 참조).

또 조그만 campaign으로 각 회원이 하루 한 번이라도 다른 골든클럽 회원과 Facetime, Skype등을 사용해 영상통화를 하자는 것이다. 집 속에 갇혀 위축되기 쉬운데 조금은 누군가와 연결이 되있는 것이 큰 보탬이 될 것 같다. 이에 연장선으로 영상회의 software를 사용해 마음맞는 회원들끼리 수다를 떨든지, book club을 운용하든지 virtual 이지만 같이 얼굴 맞대는 것이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 같다. 편집팀이 Google Meet을 통해 편집회의를 하고 있는데 꼭 권하고 싶다 (기술적인 것은 2면 영상회의 안내 참조하고 더 필요하면 편집팀에 연락 바란다.)

5월호 주요내용

코로나 특집

- 비상지원센터 개설 (2p)
- 이 또한 지나가리라 (3p)
- FOMO vs JOMO (3p)
- 나는 이렇게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있다(4p)
- Days of Solitude (5p)

추도의 글

- 고 정인식 회장을 추모합니다 (2p)
- 하늘이여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 (6p)
- 고 정인식 동문회장의 기억 (7p)



고 정인식 회장을 추모하며;

고 정인식 회장은 1940년 3월 10일 출생하여 81세를 일기로 지난 4월 2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뉴욕동창회와 골든클럽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제5대 골든클럽 회장에 취임하면서 '회원 확충과 젊은 회원 영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오늘에는 100여명 회원에 70-80 학번대 회원이 10여명에 이르며 이들 젊은 회원들이 점차 골든클럽행사 운영과 회보 편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인식 회장은 거의 모든 행사에 의욕적으로 참가하면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화목한 골든클럽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신년교례회 행사때마다 TV등 푸짐한 경품을 기증하여 행사 진행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사업 성금기부로 2층 베리타스홀 명예의 전당에 기부내역이 영구보존되고, 2016년 7월에는 부부명의로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에 '정인식 소극장'을



정인식 회원, 임광수 회장, 손일근 상임부회장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CoronaVirus 사태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동안의 행사기록 영상을 취합하여 Video로 편집해 유족께 드렸더니 현 상황이 정상화될 때 유가족이 주관하여 추모식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해 왔습니다.

〈April 7, 2020〉

"Thank you for creating this beautiful post on daum cafe including photos and video. These are intangible gifts. We are grateful for this, especially because there are recordings of his voice. He loved his friends so much, and love to play golf with his friends.

At a future date, we will have a memorial service for our father, likely in the fall.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corona pandemic has delayed our plans to honor him. We will keep you and all of his friends updated when we finalize details.

God bless you,
The Chung Family"



정인식 회장 모교 중앙도서관에 소극장 기증

Online Meeting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잠겨 있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회의가 대세이다. 학생들 수업, 비즈니스 회의 그리고 교회 예배도 화상으로 모인다. 10여년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때 전화기 교체를 망설였던 기억들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화상회의에는 Zoom과 Google Hangout 그리고 Skype등이 있다. 모두 전화기의 apps store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고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사용방

법은 대동소이한데, Zoom의 예를 들면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host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host하고 초청받아서 join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Host한 사람이 카톡 / 이메일 / 문자로 'Join Zoom Meeting'이라는 링크를 보내주면 받은 사람은 약속된 시간에 그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한번에 수십명씩을 연결할 수 있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니 남자들도 수다가 너무 많아지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시험해보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

김정필 (공71 전화 201-965-7759)

“비상 지원 센터” 개설 운영 안내 (Golden Club Emergency Support Center)

COVID-19의 전세계 확산과 뉴욕 뉴저지 지역의 비상사태 선포 및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ing)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Small business 와 학교 등이 문을 닫고 시민들도 집안에 갇힌 상태일 뿐 아니라 실직자도 많이 생겨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향후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여 골든클럽 회원과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을 처해있을 경우에 약간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비상지원센터” 를 개설하여 운영코자 하니 필요한 회원의 연락을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본 센터에 지원 요청한 골든클럽 회원과 동거 가족
2. 지원 종류:
 - 가. 식료품 (쌀, 라면, 컵 라면 기타)
 - 나. 지원 요청 내용 검토 후 지원 가능한 것에 한함.
 - 다. 의료 정보 및 법률 상담: 전문기관이나 회원 중 의사, 변호사 등에 이첩 (Referral) 또는 필요한 정보 제공
3. 연락처:

정해민 (551)-574-2015
haeminchung@gmail.com
홍종만 (646) 342-2667
hong1945@gmail.com
윤현남 (973)541-9970
yoon.hyun.nam@gmail.com

4. 본 비상지원을 이용하는 회원의 신상정보는 비 공개로 하며, 지원방안은 진행하면서 실정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사항: 정해민 고문 경력소개
뉴욕한인봉사센터 (현 KCS) 이사장
뉴욕 뉴저지 유권자 (현 한인시민센터) 이사장
00 상담실 20년 운영 경험
재외한인사회 연구재단 공동 설립자 / 초대회장: 현 상임고문

코로나 연금 중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재경 (공대 64)

작년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바뀌자 정부가 중국여행을 금지하고 3월 중순에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교회 포함), 필수업종 외의 사업체 폐쇄,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등의 초강수 조치가 숨가쁘게 덮쳐올 때 느낀 황당함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연금 상태에서 느낀 점들을 골든 클럽 회원들과 나누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 역병(pandemic)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Black Death라고 불리는 페스트로 인해 유럽 인구의 1/3이 희생되었고 1918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은 5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최근에도 사스, 메르스, 돼지 독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 많은 희생자를 냈던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가 초래한 재난은 희생자 규모 면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세계 사람들이 일시에 고통을 당한다는 면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래서 더 공포를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몰라 쓸데없는 사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서로 협조하고 방역 조치를 잘해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으로 막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이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뉴스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너무 큰일을 많이 당해서 이 정도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1950년 일어난 동족상잔의 6.25 동란, 이보다 끔찍한 재난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온 가족들과 그 재난을 딛고 살아남았을까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콧등이 시큰거리기도 합니다. 70년대 아이들과 함께 이민을 왔을 때 살아남기 위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던 기억도 부모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요 지금처럼 집안에 갇혀 지내는 이 재난은 사치

스러운 재난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바이러스 희생자의 대부분이 노약자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임이 염려스럽고 또한 경제활동의 정지로 인해 실직자가 급증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이민자들이 생계성 사업 경험이 있어 그들의 어려움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렌트를 내야하는 월말은 어찌 그리 빨리도 오는지. 그 초조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계 보조비로 일인 당 1,200불을 준다고 하니 조금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사태가 빨리 끝나기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위안 받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집회를 금지하니 서로 앙갚음을 못하고 답답하지만 하지만 인터넷, SNS의 발달로 친구 친지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유지할 수 있고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나눌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황당하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청중은 하나도 없는데 혼자 카메라를 보며 예배 인도하니 처음엔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차피 영적인 만남인데 물리적으로 같이 못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 오히려 더 실감이 난다고 할까요? 성도 각자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겠지 생각하며 위안합니다.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이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겠다 생각하니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 전승의 유명한 말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 특별한 반지를 만들라고 하며 그 반지에는 기쁨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 했습니다. 고민하던 세공사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더니 솔로몬이 말해준 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결국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9.11 사태 이후 인류의 삶이 완전히 변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바뀔 것이라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소망과 신념으로 인내하고 단결하여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회를 건설함에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골든 클럽 회원 여러분의 건투와 건강을 빕니다.

FOMO vs JOMO

Corona19 확산 억제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의 외부활동, 타인과의 만남을 억제하는 일상이 장기화되면서 '포모족'과 '조모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포모(FOMO)족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엄히고설킨 각종 모임에서 조금만 소외되면 정보 습득과 유행에서 뒤처지고 왕따된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일종의 고립 공포심을 갖는게 특징이다.

반대 격인 조모(JOMO)족은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해 즐기는 사람들로, On-line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무분별한 과다 정보와 인간관계를 적절히 차단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개발에 몰두하며, 중요 소통 수단인 SNS 마저 스트레스로 간주하고 멀리한다.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무인도에 갇혀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흡족하다고 만족할까.

포모족과 조모족,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일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중앙일보 서정민 스타일 팀장'에 공감하면서 영어사전을 열어보니 FOMO, JOMO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홍종만(공대64)

우리집 뒤안길:

나는 이렇게 COVID 19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

이행순 (미대 60)

이사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린 그 집에서 30 년을 살았다. 넓은 정원에 조용한 동네, 창문마다 철 따라 변하는 나무, 꽃, 하늘이 보이고, 새소리, 풀벌레 소리, 토끼, 다람쥐, 사슴 등등 -- 가끔 때로 오는 야생 칠면조, 볼거리가 너무 많은 그곳, 눈뜨면 한바퀴 산책하던 동네 길. 편하고 살기 좋게 집구조도 차근차근 바뀌가면서, 어둡다 생각되던 큰 창문을 넣고, 창문 있는 화장실이 좋겠다 해서 방을 화장실로 만들고, 화장실을 closet으로 개조, 부엌, 창문, 마루 등등, 우리 살기엔 가장 편리한 공간으로 바뀌 놓았다.

“당신이 어떻게 나만 혼자 두고 갈수 있어요?” 수없이 아닐 것이라고 외쳐봐도, 늘 함께 옆에 있어 줄줄 알았던 가장 친한 친구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편이던 그가 가다니 - 그토록 정들었던 집이 갑자기 감당 못하게 넓고 구석 구석마다 함께 웃고 얘기했던 추억 속에서 난 홀로 동그마니 남아있었다. 한 선배님이 위로가 될 것이라며 사 주신 책 “당신은 가고 나는 남았다”를 읽어가며 위로 받고 싶어도 헛수고, 늘 다니던 곳도 그가 없는 집을 향하는 발길이 왜 그리 멀고 쓸쓸하게 뻐 속까지 사무치던지 --

혼자 견디기 힘 든다고 함께 있자는 친구의 권유로 서울, 제주에서 6 주를 지내고 귀국행 비행기에서 갑자기 내 인생의 행복하고 감사했던 1 막은 끝났고 나 혼자만이 헤쳐 나갈 2 막이 열렸는데 나 아니면 감당할 아무도 없다는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10 년 전에 마련해 놓은 집을 수리하고 이사온 날 침실에서 내다보니 숲이 우거진 곳이 있어 숲을 따라 찾아가니 오솔길이 있고 작은 공원, 그 곳을 지나 한적한 주택가 -- 내 맘에 꼭 드는 산책 길, “우리 집 뒤안길”을 찾은 순간 이사하기 좋했다는 안도감으로 오랜만에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집을 구입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꼭 보너스 받은 그런 기분) 매일 습관처럼 그 길을 걸으면서 함께 걸을 친구가 있으면 --

몇 년 더 사시겠다던 테넌트 부부가 사정상 이사를 가고, 아들이 타주에 있는 혼자 사는 분이 테넌트로 정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속에서 딸들도 엄마 집에 못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요즘에도 우리 둘은 맛 있는 것 나눠 먹고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정성스레 상을 차려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의중계 보내고 있다. 마음 씀, 몸가짐, 많은 점이 통하는 이웃 친구를 보내주심에 두 딸들은 하나님, 그리고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한다. 아빠는 늘 그러시더니 여전히 엄마를 돌봐 주신다고, 엄마는 Lucky 라고 --

나의 그림을 가장 좋아하고 칭찬해주던 그가 간 후, 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정이 없어졌었는데 -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초보생으로 돌아가서 꽃도, 야채도 꼬적거리 보니 내 마음에 작은 평온이 온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는 나의 일상생활이다.



고 이재원 회원(법대 60)이 살아계실 때는 수시로 꽃을 사들고 집에 왔는데 2018년 12월에 작고하신 후 가끔 딸들이 집에 올 때 아빠 대신 꽃을 가지고 온다며, 지난 Easter날 가져온 꽃을 보면서 sketch 했다고 전합니다. 옅은 빨간 색이 일부 보이는 그림은 Radish 이며 다른것은 bouquet of real flowers 라고 합니다.

DAYS of SOLITUDE CORONA VIRUS QUARANT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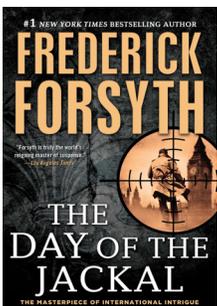
정도현 (공대 57)

I wonder how a monk or an inmate in prison spends time. During the last 50 days or so, my life has been changed, upside down so to speak. I feel like I am hung up somewhere in between the "Time & Space". My daily routines get up late in the morning, eat & drink a lot, watch TV or computer and go back to sleep. It drives me crazy. No live sporting events on TV. The only thing I see is wall to wall Corona Virus news.

I know I have to do something to escape this boredom. So I decided to visit my personal film library, which has most of the great classic movie DVDs I've accumulated over the years. I watch at least one or two movies a day. It's my version of film festival, me as a movie critic. By now I've seen well over 50 movies, mostly highly acclaimed classics such as Citizen Kane, GWTW, Casablanca, The Third Man, God Fathers etc. But, to my pleasure, I also find not so well known classic masterpieces which are equally as good and entertaining. I like to share my thoughts on some of these hidden gems.

The Days of Jackal (1971)

A movie of action thriller ba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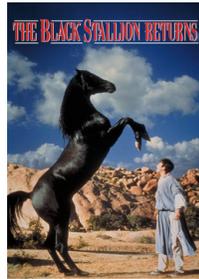
on the best selling novel by Frederick Forsyth about the professional assassin contracted by French dissident

to assassinate French President Charles de Gaulle. It is a great movie tightly woven

with great detail of a cat and mouse game between Jackal (assassin) and security agent. Edward Fox plays an excellent role as Jackal.

The Black Stallion (1980)

A heart-warming adventure story of a boy and a wild stallion, on a deserted island after shipwreck,



forge a special friendship and later they become a winning race horse and jockey. The first half of the movie is a pure magic, while the second half falls into a conventional formula.

The French Connection (1971)

A suspense thriller of a NYC narcotic tough cop against French smuggler & NY mafia gangs. The car chase scene under the elevated subway line in Queens may be the best in the movie history. Gene



Hackman played a leading role, won the Oscar and solidified him as one of the most versatile actors of our generation.

Zorba The Greek (1964)



A movie of a joyous affirmation of life. Zorba, played by Anthony Quinn, despite his many imperfections, has a genuine love, kindness

and passion. Along with other marvelous cast members, Quinn's performance was phenomenal. He should've won the Oscar instead of Rex Harrison (Prof. Higgins) of "My Fair Lady". The final dance scene was memorable and affirms the movie's message.

"Z" (1969)

An epic political thriller,



fictionalized account of an event surrounding the assassination of a democratic Greek politician. The story rhymes with many contemporary

world events. Movie exposes right-wing junta coup of generals & police chief, but at the end they were cleared of all charges. This movie will make you very angry. It won the Best Picture award for Canne Film Festival.

My Darling Clementine (1946)



Not just a great Western, a great film period. It stands tall equal to "High Noon" & "Stagecoach". It is John Ford's

retelling of the Lawman Wyatt Earp and Clanton's gang of the OK Corral. Henry Fonda plays Earp with dignity & confidence, while Victor Mature was almost as good portraying Doc Holliday. Later, a movie is remade with Bert Lancaster as Earp in the title "Gun Fight at OK Corral."

하늘이여, 이 사람 굽어 살피주소서

이종석 (상대 57)

을씨년스러운 겨울날이었다. 맨하탄 거리 모퉁이는 예외없이 강풍이 사나워 행인의 오금을 못 퍼게했다. 그날 정인식은 상록수처럼 사시사철 변화가 없는 얇은 천의 곤색 정장 차림이었다. 몹시도 추워 보였다. 병색이 짙은 핏기없는 창백한 얼굴에 모인 동문들의 눈길들은 아쉬움이 가득했다. 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정회장도 달을 넘기면 산수라는 80 연세인데 입는 옷도 노인 에 걸 맞는 가볍고 따뜻한 것으로 바꿔야지.” “그것이 뭔데? 형” 라고 되물어왔다. “오리 깃털을 안에 두어 만든 duck-down 재킷이지”

일주가 지난 다음주 같은 날에 만난 정인식의 옷품새는 훌쩍의 소매없는 vest를 두개 끼어입고 나온 것이 최선을 다한 방한대책이었다. 그날도 사계절의 전천후 곤색정장에 하얀 서울대 뱃지만 유난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음주 월요일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 그러나 모인 동문들의 표정은 안절부절이었다.

그 다음주에도 정인식 자리는 비어있었다. 결국 ‘더 큰집’ 여주인 박사장을 동원했다. 그녀는 달려와 정회장 작은 아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하며 어서 같이 나갈 채비를 하라고 서둘렀다. 도착지는 한 병원의 병실이었다. 그날 병원에서 상면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오래들 살아.” 남긴 말의 전부다. 더큰집 여사장이 면회를 끝내고 병실 끝자락에서 끝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병원의 사의 진단은 폐렴이었다.

정인식과의 관계는 60년 이전으로 돌아간다. 학교 시절이었다. 학년으로 일년 후배였지만 늘 가깝게 지내왔다. 그는 영어를 좋아해 국정호 여교수와도 각별하게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고인은 고등학교때 유도를 몸에 달고 살아 몸이 다부졌고 손목힘은 대단했다.

여담이지만 5.16 혁명때는 형이 서울 시경국장인지 치안국장을 지내고 있어 같이 다니면 통행금지 무사 통과하는 갑질도 누렸다. 나는 한참 후 아이들 모두 결혼한 후 뉴욕에 이민와서 정인식을 재회하였고 그때의 그는 사회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었고 소리없이 많은 자선을 베풀고 있었다. 나만이 아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았고 자선을 크게 행동으로 옮긴 보기 드문 불세출의 수줍음을 타는 인물이었다.

내 주위에서 그만큼 말을 아끼고 공치사 없이 언행일치를 실천해오는 인물을 찾기 힘들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역지로 흠을 찾는다면 누구를 만났든 웃음을 띠 표정이 없어 친근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도 몇 번 말해주어 본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용은 대단히 검소하고 말은 늘변이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는 깔끔한 거인이었고 가슴의 체온은 평균이상으로 따뜻하였다. 모교에도 2억의 거금을 쾌척해서 소규모의 연극도 할 수 있는 소강당을 만들어주었고 그 입구에는 정인식과 부인 박숙자씨의 헌정이라는 설명도 각인되어 있다.

작금에는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로 차고 넘쳐 있지만 마치 홍수속에 먹을 물이 없듯이 참인물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바로 정인식은 우리들이 찾고 있는 사회지도자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위 같은 진실이라고 나는 믿는다.

인식아! 이젠 좀 쉬고 편안한 영생을 누리게나. 내가 남기고 간 자리가 너무 커 잊기에는 영겁이 걸릴 것 같다. 그곳에서는 아끼지 말고 따뜻한 옷 좀 사서 입고 지내라



2017년 4월 13일 Blue Hill에서 golf outing, 오른쪽부터 한경수 정인식 회원과 함께



2016년 6월 29일 Tallman Park Picnic에서



2015년 10월 30일 Birkshire Valley골프대회 시상식에서

고 정인식 회장의 기억

김영덕 (공대 53)

2020년 봄은 너무도 잔인한 봄입니다. 아끼고 좋아했던 동문 두 분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서울대 뉴욕동창회 26대 회장과 골든클럽 5대 회장을 역임하며 동문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했던 정인식 동문이 지난 4월 2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부인의 설득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하니 분명히 하늘 나라로 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에는 역시 서울대 뉴욕동창회 31대 회장을 지낸 골든클럽 한경수 회원이 한달 20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카톨릭교회의 독실한 신자였으니 두 분이 틀림없이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두 분 다 골프 동우회 DCI member로 2005년부터 15년을 Bronx의 Pelham Bay and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매주 수요일 골프회동을 해 왔는데 금년은 3월 초부터 골프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 나라 골프장에서는 mulligan은 원하는 대로, putting 은 무조건 give 한다고 농담 즐기던 두 분이 그곳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 지 소식 좀 주십시오. 이곳에서 rival이 있으니 그 곳에서도 rival이겠지요. 두 분의 폭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동문 장례에는 300여명의 조문객으로 자리가 없어 옆방에서 TV 화면으로 보았는데 정인식 동문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Social distancing으로 장례조차 제대로 못하였으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픔과 황당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동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 더욱 답답합니다.

15년 매주 골프회동한 친구로서 골프게임 후 19th Hole에서 기억 중 몇 자 적어 인간 정인식 동문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정인식 동문의 해학을 통한 직설적 표

현은 그의 인생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해학 이야기나 표현을 적시 적소에 쓰는 데는 정인식 동문을 따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 “우리 나이에 가는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형님이지요.” 그렇게 ‘형님’ 소리가 듣고 싶은가요? 이제부터는 ‘형님’이라고 불러드리지요.

2. “마누라 하자는 대로 하면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오지요.” 특수 체질 때문에 부인께서 항상 철저한 식단을 준비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 동반 오찬이나 만찬 모임 때 남편 식단에 유난히 신경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한마디 하는 명언입니다. 저의 식단과 하는 일에 전혀 관심없는 제 처의 경우를 생각하며 부러워했습니다.

3. “꼭 이기겠다면 저 드리지요. 우리 인생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중요한 골프시합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희로애락 인생 경험 터득한 도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꼭 이기려고 할 때 생기는 긴장과 무리를 해소하여 자기 골프가 잘된다는 이치를 알려 주는 말입니다.

4. “Go man go, Is man is.” 잘 알려진 대표적 Konglish이며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어야 한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 등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동문이 가장 즐겨 쓰던 이 표현은 그의 인생관과 철학을 잘 나타낸다고 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운 이때에 골든클럽 회원 가정과 특별히 슬픔에 잠긴 고 정인식 회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원 명단 (102명 / 2020-04-17)

강교숙	김영덕	손경택	윤현남	임호순	최철용 최학주 추재옥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홍사만 홍종만 홍정만 홍예경 홍지
강에드	김영만	손대홍	이강홍	장동만	
계동휘	김우영	손옥화	이국진	고애자	
곽상준	김익성	송근숙	이기덕	정도현	
곽선섭	김인형	송웅길	이대연	정수일	
곽승희	김재경	송현자	이대영	정해민	
구달회	김정필	송학린	이범선	조달훈	
권영대	김중홀	신진식	이수호	조승자	
권정덕	김창수	이정자	이전구	조상근	
권태전	김태일	신원철	이정필	주상선	
김광수	김현중	신응남	이종대	주재양	
김광현	노용면	양인회	이종석	진봉일	
김동진	민준기	오성	이준행	최구진	
김병순	박기환	오순문	이준희	최병우	
김문경	박희병	오유섭	이행순	최수용	
김문인	배상규	오인석	이행순	최순채	
김상만	성기로	우규환	이흥빈	최준희	
	손갑수	유무영	임도혁	최진영	

골든클럽 2020년 행사 일람 Updated: 2020-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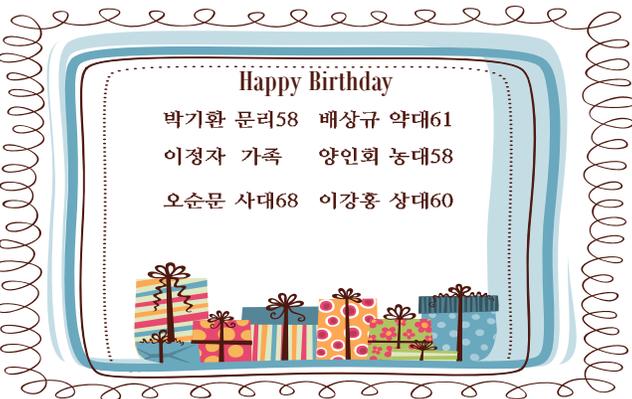
1월	1/26~2/1	Winter Golf Trip, Palm Beach, FL, 31명 참가
3월	28 (토)	신년교례회 - 취소
	16 (목)	Opening Golf Outing - 취소
4월	30 (목)	Hiking, Harriman State Park - 취소
5월	13 (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취소
	11 (목)	Golf Outing - 취소
6월	24 (수)	Picnic, Pizza Party - 취소
	9 (목)	Golf Outing
7월	22 (수)	문화, 예술, 정원 등 경승지 방문
8월	6 (목)	Golf Outing
	20 (목)	BBQ Picnic, Westchester County Park
9월	3 (목)	Golf Outing
	1 (수)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10월	22 (목)	Hiking
	29 (목)	Season-off Golf Outing
2021년		
1월	27~31	Florida Golf Trip
3월	27 (토)	신년하례회

2020년 연회비 납부 명단 (46명 / \$4,600 / 2020-04-17)

강에드	김영만	손갑수	오성	이정필	최순채 최준희 한용오 한태진 홍사만 홍종만/ 홍예경
강교숙	김우영	손경택	오순문	이종대	
계동휘	김인형	손옥화	오유섭	이준희	
곽상준	김재경	송학린	오인석	이행순	
곽선섭	노용면	신원철	이강홍	임호순	
권영대	박기환	신진식/ 이정자	이국진	정해민	
김병순	박희병	이정자	이범선	주상선	
김문경	배상규	양인회	이용대	주재양	

2020년 후원금 납부 명단 (10명 / \$4,700 / 2020-04-17)

곽선섭 \$100	이강홍 \$300	정해민 \$500
손경택 \$1,000	이준행 \$1,000	한태진 \$500
송학린 \$500	이행순 \$200	
성기로 \$300	임호순 \$30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일정 (휴강)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뉴욕새힘장로교회
 47-33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교육관
 100 Rochelle Ave, Rochelle Park, NJ 07662

아래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 입회비 \$200
- 연회비 \$100
- 후원금 (\$) _____